

104회기 의회부서장 회의 갖고 사업계획 논의

“사업 진행할 예산 확보 가장 시급한 문제” 지적



지난 6월 19일 성결대학교 소회의실에서 104회기 의회부서장들이 모여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예성교단의 변화는 의회부서가 각 부서 업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올해 각 부서가 모여 104회기 사업을 정하고, 열심히 진행하여 105회기 총회 때 그 열매를 대의원들에게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각 부서장들은 미리 부서 회의를 통해 작성한 사업과 예산안을 보고하였다. 2시간을 넘게 열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교단의 발전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다.

▲ 법제부부장 최상현 목사는 현장 개정안 심의 및 해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일정 등을 보고했다.

▲ 교육부부장 노윤식 목사는 목회자 평생교육과 성결교육진흥원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전도사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기독교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방안들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선교부부장 라건국 목사도 전도대회 및 120주년 세계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 교단이 협력해 선교 플랫폼

을 구축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선교사 후임 문제를 총회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뤄줄 것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 고시부부장 김만수 목사는 목사인수대상자에 대한 인성검사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성결대학교 커리큘럼과 총회 기준이 맞지 않아 현장에 명시된 12과목 중 이를 미처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고시부와 학교 측의 빠른 대처가 있어야함을 건의했다.

▲ 청년부부장 이창기 목사는 청년연합수련회, 청년사역자 워크숍 등의 고정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학생부부장 김영국 목사도 여름수련회 계획을 보고하고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교육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보급체계의 구축을 총회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어촌부(부장 이명선 목사는) 영덕지방 산불피해 복구지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지원, 도시 및 농촌교회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모색해야함을 보고 했다.

▲ 재정부(부장 박성태 목사는) 총회 유지비 및 미납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실천해야함을 주문했다. 교

세 통계 및 세례교인비 납부 문제와 유지비 산정기준 및 최저금액 상향을 논의하고 교단의 재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도 밝혔다.

▲ 사회복지부부장 김병천 목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교단차원에서 진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성연이 공동주관하는 사회복지포럼, 복지콘서트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 군경선교부부장 조일구 목사는 군선교주일 운영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연부대 합동 세례식, 군목, 군선교사 수련회에 대한 사항 등을 보고했다.

▲ 목회전산부부장 김병수 목사도 총회 행정서류의 온라인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했다.

▲ 출판부부장 김성철 목사도 개교회 임직자들에게 대한 교재 출판과 교회별 교육자료 출판 및 배포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업을 진행할 예산이다.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업비 문제로 실제로 그간 의회부서 외에는 다른 부서들의 모임은 활동이 미미했다. 이를 위해 총회본부는 “보통된 사업과 예산을 취합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마련하여 유지재단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충분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서별 사업의 연속성은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어떻게 올해의 세워진 계획들이 진행되어질지, 부족한 예산들을 어떻게 채워갈지, 그저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실천되도록 함께 성결인 모두가 참여하고, 후원하고, 응원하여 한결을 크게 전진하는 104회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52회 목사고시 오는 11월 6일 시행

원서접수 오는 8월 8일까지... 영성 지성 강조



목사고시위원회(위원장 강명국 목사)가 제56회 목사고시를 앞두고 고시전반에 걸친 점검과 함께 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제56회 목사고시를 오는 11월 6일(목)~7일(금) 양일간에 걸쳐 총회본부에서 치르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원서접수를 받기 시작해 오는 8월 8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받는다.

고시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과목당 3만5천원으로 동일하기로 했다. 또한 고시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고도서도 가급적이면 과목당 3과목 이내로 하자는 의견들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응시과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개 과목이다. 한해 최대 응시과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과목 이하로 제한하여 응시생들이 고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응시생들을 위한 고시설명회는 오는 9월 4일(목)과 5일(금) 양일간에 걸쳐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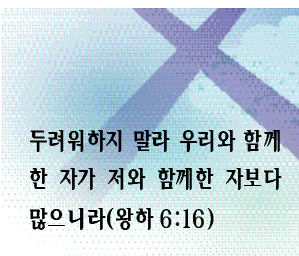
올해 목사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성과 지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주기 위해 고시설명회 이후 2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줘 11월에 고시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논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목회자로서의 기본 덕목인 성경시험 등을 위한 준비도 꼼꼼히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담당과목 책임교수.

△구약신학 석진성 목사 △교회개척과성장 이종동 목사 △선교와전도 임복용 목사 △예배학 배상도 목사 △신약신학 김순홍 목사 △현장 전영호 목사 △조직신학 김영택 목사 △설교학 김원태 목사 △사중복음 김정호 목사 △교회사 강명국 목사 △목사학 고신원 목사.

동정	
	총회장 홍사진 목사
7.1	성결을 위한 기도회
5	이종복 목사 원로 추대 및 석진성 담임목사 위임식
6	김윤석 목사 원로 추대 및 서민기 담임목사 위임식
6~12	한성연 수련회
16	평신도 간담회
17	총회 임원회의
18	군선교회 모임
18~19	남전도화전연원회 수련회
24	총회 실행위원회

 총회본부 ARS 대표번호
1600-0695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왕하 6:16)

긴급재난대책본부, 산불피해 지역 후속 지원 논의

농어촌부 공동으로 대민 지원 및 농활 이어 나갈 것

긴급재난대책본부본부장 이광섭 장로는 지난 6월 26일 신월동교회에서 사회복지부·농어촌부와 함께한 연석회의를 갖고 영남 지방 화재로 인한 후속지원대책들을 논의했다.

지난 5월, 1차로 수암리 농가에 농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을 전달한 이후 본격적인 후속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긴급재난대책본부는 우선적으로 산불로 인해 집과 농기구가 모두 소실된 수암리마을에 4천 5백여만 원을 긴급 투입해 생계가 달린 농사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농사관리기 14대와 가스레인지를 제공했다.

2차 지원은 농어촌부 산하 교회들과 협력해 대민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부 고신원 목사는 “농어촌부 산



지난 5월 영덕군 수암리 농가에 농사관리기 14대를 지원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하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농촌일손돕기, 재해 주택 수리, 마을가꾸기, 반찬 지원 등 영역, 육체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7월 28일 현지 답사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도 이날 1차 수

암리 마을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보고하고 영덕군 군수와 마을 이장과의 협의 내용들을 공유하며 “수암마을 뿐만 아니라 영덕군에까지 예성교단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서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며 농촌일손이 바쁜 농번기를 지나지 않게 빠른 시간내에 지원을 이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총회성결교신학교와 성결교신대원 연합 영성수련회 개최

탐비전센터서 영성 함양 위한 기도의 시간 가져



총회성결교신학교학장 김순홍 목사와 성결교신대원(원장 서영원 목사)은 지난 6월 27일(금)~28일(토) 탐비전센

터(불광동)에서 연합 영성수련회를 진행했다. 연합으로 진행하는 모임은 처음 진행하였으나 서로의 협력과 배려, 섬김

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각 신학교 대표(박정은 학우)와 신대원 대표(박금숙 원우)가 협력하여 준비하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일정으로는 신학교에서 준비한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가 있었다. 말씀 감사는 이태곤 목사(당진중앙성결교회)가 당진에서 탈려와 목회현장에서 고백하고 발견한 말씀을 전했다. 다음날(토)에는 신학교 학생들과 신대원 원우들의 교제 후 헤어지면서 다음을 약속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www.sts.kr 02)725-7078)와 성결교신대원(www.sts.org 02)725-9964)에서는 가을학기 신입생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하반기 교단 주요행사

1. 학생부 전국연합수련회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학생부 전국연합수련회가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다. 청소년사역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수련회는 더 파워(The Power) 신유를 주제로 진행된다. 청사위 위원장인 윤성철 목사는 전국교회 1,000명 학생들이 모여 모든 교회가 하나의 예성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나는 수련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이 약 1억 5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행사여서 전국교회의 협조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전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2. 한성연 청년연합수련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연합수련회가 오는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기성 신길교회에서 개최된다. 예성, 기성, 나성의 청년들 3천여 명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결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결의 복음을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어둡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성결’의 메시지를 크게 외쳐 시대를 정결케 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분교단 청년부가 총괄 기획, 진행한다.

실무 준비를 맡고 있는 이 규 목사는 “세 교단의 청년들이 연합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성결교단의 연합을 통해 다시 성령의 불이 인하고, 젊은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3. 목회자부부 초청 하계수련회

2025 목회자 하계수련회가 제주도 라마다호텔, 제주성결교회 일원에서 오는 8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다. 현재 48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신청을 했다. 총회장 홍사진 목사는 공약사항이었던 민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첫날 저녁집회는 최병락 목사(강남침례교회)의 집회, 둘째 날은 개그맨 조혜련 씨와 트로트 가수 조정민 씨의 특별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라마다중문호텔을 숙소로하며 인근 제주제일성결교회에서 저녁집회는 진행된다. 지방회별로 랜트키와 식비가 별도로 제공된다.

4.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지난해에 이어 제2차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 교육이 9월 8~12일까지 필리핀 호평신학교와 일로일로신학교에서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성결교단의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사중복음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상담, 목회행정, 성경신학 등으로 목회자 재교육을 진행했다.

호평신학교를 운영하는 이병호 선교사는 “사중복음 강의를 통해 큰 도전과 정체성 확립에 도전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필리핀지방회는 필리핀에서 열린 정례 수련회에 참가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 재교육을 통해 현지인 목회자 지방회가 설립되도록 올해도 개최하도록 관심과 도움을 요청해왔다.

5. 목회자평생교육세미나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목회자평생교육 세미나가 오는 9월과 11월, 2026년 2월에 각각 진행된다.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100명이 참가대상이며 총회교육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총회본부는 교육국 사업을 통해 분기별로 성서신학, 설교학, 실천신학 분야의 주제들로 목회자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9월 구약신학임시영 목사, 1월 설교세미나 오현철 교수, 4월 실천신학 분야는 강사를 모색 중이다.

6. 2026년 목회계획세미나

10월 셋째주에 진행할 목회계획세미나는 내년도 목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진행된다.

오전 강의는 지난해 평생교육에 참여했던 지용근 대표가 ‘목회트렌드 2026’을 중심으로 목회환경과 성도, 국민들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시간에는 목회의 기본 구조, 소그룹의 실제적 운영, 교세별 성장 전략 제시하고, 현재 목회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팬데믹 이후 방향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우선적 기조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7. 부교역자 목회세미나

한국교회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부교역자’이다. 신학생과 부교역자 즉 차세대 목회자들인데, 딱히 그문제를 위한 대안이나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총회에서는 부교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들을 위한 격려와 감사, 어려움과 요구도 직접 듣고, 나아가 목회에 필요한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2인자 리더십을 구축하라’는 주제로 교단내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본부 제공〉